



제20회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새 보 란

SAEBORAM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23호

2011년 4월

장애인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해!!

2008년 4월 11일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수많은 차별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장애인당사자’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갑시다.

내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김정록 중앙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제31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장애계 최고 수훈

김정록 중앙회장이 4월 20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 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4월 20일 (수)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중증장애인 40여 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수훈의 영광을 안았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한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는 김

황식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장애인계 인사 및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편견은 차별을 낳습니다. 배려는 평등을 낳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등과 함께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도 실시됐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 김정록 중앙회장 외에 미국 LA에서 화상·정형 장애아동과 시각 장애인에게 무료 시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약사 이상주씨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이 수여되는

등 총 7명에게 훈·포상이 수여됐다. 또한 만화캐릭터를 활용해 장애인 인식개선에 앞장선 만화가 강주배씨에게 대통령 표창이, 4살 때부터 촉필화를 그려온 임인석(지체장애1급·언어장애3급)씨에게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 이밖에 국내 농아인으로 유일하게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을 보유한 목공예사 손준호(청각·언어장애1급)씨, 장애인 사업가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 이창화(시각장애1급)씨 등 장애인 5명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예방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장애인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중증장애인 생수품을 적극 구매토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는 장애인 예산을 전년보다 8%로 이상 늘려 복지혜택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겠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돌아봐 장

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31회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식개선’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박진희 씨와 홍보대사와 영화 ‘글러브’의 모델인 청각장애인 야구단 중추 성심학교 야구단원 홍준석 군이 함께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했다. 이밖에 지난해 ‘슈퍼스타 K’에서 대상을 수상한 가수 허각, 시각장애인 가수 김지호의 축하공연과 강원래의 ‘콩따리 유랑단’의 공연이 차례로 열렸다. <12~13면 계속>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여일 앞으로

5월 8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 12개국 참가, 10km 신설

‘KBS 중계’ 3년만에 재개... 조직위,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것”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의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의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조직위의 분주한 움직임과 대회를 성원하고 있는 장애육상인, 관계기관, 시민 등의 도움에 힘입어 이번 대회는 ‘20회 대회’의 이름에 손색이 없는 규모

로 치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를 비롯해 국내·외 장애육상인들과 많은 시민들의 참여는 물론, 새로운 종목 10km부분 신설, ‘KBS 중계’ 확정 등의 호재가 들리며 조직위는 이번 대회가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휠체어마라토너들의 이목도 서울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1년간 흘러온 땀방울로 지난 대회의 영광을 재현

하기 위해, 새로운 세계기록의 주인공 혹은 누구도 생각치 못했던 이번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을 꿈꾸고 있다.

대회를 20여일 앞둔 오늘, 전 세계의 휠체어마라토너들이 서울을 주시하고 있다.

■ **IPC 공인, 12개국 참가**
조직위는 지난 2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의 공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는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게

됐음은 물론, 출전 선수의 기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게 되었다.

IPC의 공인을 획득한 후, 조직위는 톱 클래스의 선수를 비롯해 전 세계 휠체어마라토너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그결과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개국에의 휠체어마라토너들이 서울에서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몽골, 타지키스탄 등의 선수들이 처음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이번 대회에 새롭게 신



국가별 참가 현황 - 폴코스

연번	국가	참가선수
1	한국	10명
2	일본	11명
3	우즈베키스탄	3명
4	태국	3명
5	캐나다	1명
6	스페인	1명
7	호주	3명
8	스위스	1명
9	스웨덴	1명
10	러시아	2명
11	타지키스탄	1명
12	몽골	1명
합계	12개국	38명

국가별 참가 현황 - 하프코스

연번	국가	참가선수
1	한국	5명
2	일본	12명
3	호주	2명
4	러시아	3명
5	타지키스탄	2명
합계	5개국	24명



지난해 19회 대회에서 풀코스 부문 우승을 차지한 일본의 호키노우에 코타(Hokinoue Kota) 선수

지난 19회 대회의 참가한 국외선수들이 문화탐방을 끝내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설된 10km부문과, 5km(경쟁, 비경쟁) 종목에 모든 유형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2000여명이 참가해 ‘장애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 KBS1 녹화 중계 확정

조직위는 지난 2009년부터 중단된 ‘KBS 중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상당한 공을 들였다. 조직위 측은 KBS

제작진과 수차례의 면담을 가지며 “대회 중계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영방송의 사명감”이라고 주장하며 대회 중계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김정록 중앙회장은 KBS 임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대상으로 대회 중계를 위한 노력을 최근까지 지속해왔다.



KBS측의 긍정적 답변에 따라 TV중계가 3년만에 이뤄질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지난 18회 대회의 녹화중계 장면)

그 결과 최근 KBS 측에서 대회 중계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중파를 통해 전국에서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 펼쳐지는 감동의 레이스를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최대규모와 다양한 이벤트로 가득한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오는

5월 8일(일) 오전 8시,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체육회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KBS한국방송이 후원하며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협찬한다.

■ 대회개요

- ▶대 회 명 :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 ▶기 간 : 2011. 5. 05(목)~5. 08(일) (3박 4일)
 - ※ 출발식 : 5. 08(일) 07:40~08:00(잠실 올림픽주경기장)
 - ※ 본경기 : 5. 08(일) 08:00~11:30(잠실 올림픽주경기장~성남일대)
- ▶개 최 지 :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라톤코스(공인코스)
- ▶참가규모 : 총 20여개국 15,000여명(선수 및 임원, 자원봉사자, 진행요원 등)
- ▶대회종목 : 4개 종목
 - 풀 코 스 : 42.195km (엘리트 선수)
 - 하프코스 : 21.0975km(엘리트 선수)
 - 10km경쟁 : 장애인 및 비장애인
 - 5km경쟁/비경쟁 : 휠체어생활체육선수/시각·지적 등 기타 장애인
- ▶주요행사 : 의무분류, 코스답사, 문화탐방, 개회식, 본 대회 등
- ▶주 최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 ▶주 관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대한장애인체육회, KBS
- ▶협 찬 :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공식음료 : 포카리스웨트

■ 대회 목적

- ▶국제장애인올림픽 육상위원회(IPC)로부터 공인을 획득한 국내 유일한 국제장애인스포츠대회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가의 위상을 높임.
- ▶유수한 장애인 스포츠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함.
-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식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대회종목

종 목	거 리	경기구간	비고
풀코스	42.195 km	잠실 종합운동장 앞 · 성남	반환점
하프코스	21.0975 km	잠실 종합운동장 앞 · 강남구	반환점
10KM	10 km	송파구 일대	반환점
5KM	5 km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순환코스

■ 대회일정

일 자	시 간	주요행사	장 소	비 고
5. 05(목)	09:00~	선수단 입국지원 선수단 입촌	인천국제공항 올림픽 파크텔	입 촌 선수 등록
5. 06(금)	09:00~14:00	한국 문화 탐방	김치박물관 예정	조직위원회
	15:00~18:00	풀, 하프 코스 선수의 무분류	선수촌 의무실	의무위원회
5. 07(토)	09:00~12:00	코스답사	잠실-성남	기술위원회
	13:00~17:00	5KM 코스 선수 의무분류	잠실실내체육관 앞 광장	의무위원회
5. 08(일)	08:00~11:00	본경기(출발)	잠실종합운동장 남문 광장	출 발
	11:00~12:00	시상식	올림픽주경기장	폐 회
	18:00~20:00	환송연	올림픽파크텔	조직위원회
5. 09(월)~	09:00~18:00	선수단 출국	인천국제공항	퇴 촌

발행인 칼럼



“일자리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입니다”

통령의 지적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지역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권은성(가명, 56세)씨의 꿈은 지적장애 3급인 아들 권준우(가명) 씨와 함께 무공해농장을 경영하며 ‘공동체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권 씨의 아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월) ‘제31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기 위한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모범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해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정부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더욱 힘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제 불황과 사회적 차별에 의해 비장애인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와 같은 이 대

“어른이 되면 누구나 힘들어도 일해야 한다”는 아버지 권 씨의 의지에 따라 10년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대형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준우 씨는 한동안 출퇴근이 4시간이나 걸리는 직장을 다녀야 했습니다. 특히 권준우 씨의 월급은 상용근로자 평균의 30% 남짓한 80여만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제 2만 3249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장애

인 고용률은 2.24%. 전년보다 0.07%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4배 이상 높아진 수치이며, 요즘 같이 비장애인도 직장을 구하기가 힘든 불황에 이는 괄목할 만한 성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들에게 취업은 너무나 어려운 ‘벽’입니다. 취업 장애인들은 단순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학력을 높여도 적성에 맞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을 졸업한 한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없게 되자 애써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단순노무직을 택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수록 직장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은 이제 거의 고정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애써 취업에 성공했다라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81만 9000원으로 전국가구 평균(337만원)의

54%에 불과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비용을 통칭하는 장애급여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0.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2%에 크게 못 미칩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권준우씨처럼 8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저 또한 장애인복지의 기본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스스로 ‘경제적 독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일을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번 임금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정록**

김정록 중앙회장, ‘청와대’ 방문

김윤옥 여사, 18일 장애인단체장 초청



지난 18일 청와대를 방문한 김정록 중앙회장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김정록 중앙회장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직원들이 지난 18일(월)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4월 20일(수)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김윤옥 여사와 진수희 복지부 장관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김윤옥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발전은 장애인 단체장과 시설장 등 평생에 걸쳐 장애인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치하했다.

‘장애인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실시



3월 25일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11년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모습.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난 3월 25일(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에 위치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1년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을 개최했다.

지장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협회, 지회 및 산하기관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매년 바뀌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을 비롯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높

이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됐다.

또한 다양한 상담 사례를 공유함은 물론, 상담관련 종사자들의 전국적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교육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혁기 사무관의 ‘장애인활동지원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재준 과장의 ‘법률 지식과 피해구제’, 지장협 중앙회 이춘희 여성정책팀장의 ‘2011년 변경된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강의 등이 실시됐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23호 2011년 4월 20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11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정관 개정·2010년 결산·2011년 사업계획(안) 등 원안 가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난 3월 28일(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1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보고안건으로 ‘2010년도 사업보고’, ‘2010년도 감사보고’가, 의결안건으로는 ‘정관 개정(안)’, ‘2010년 결산(안)’, ‘201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감사선출’이 상정됐다.

먼저 2010년도 사업보고에서는 중앙회 송용성 조직행정실장이 홍보계몽, 직업재활, 편의센터, 체육진흥 등의 2010년도 지장협 사업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음을 설명했고, 이후 김흥수 감사는 ‘2010년도 감사 보고’를

김정록 회장 “회계전문 감사 위촉해 투명성 높일 것”



지난 3월 28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2011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이 대의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감사한 결과 2010년의 예산안의 집행결과가 관계법령 및 자체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보고안건 이후 ‘정관 개정(안)’이 첫 번째 의결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관 개정(안)’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목적사업에 ‘의료시설(병·의원) 건립·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정관 제4조 제13항), 후원금 관련 내용을 ‘성문화(成文化)’함으로서 투명성을 제고(정관 제37조 제2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두 번째 안건인 ‘2010년도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201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통해 지장협의 2011년 사업규모가 지난해 30억7천8백2십5만3천원보다 3억2천8백여만원 증가된 34억6백3십9만3천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법인 임원인 감사의 임기만기가 도래해움에 따른 ‘감사선출’에 대해 대의원들은 총회 의장인 김정록 중앙회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김정록 중앙회장은 “감사 중 1명을 회계전문가로 위촉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2011 장애인 취업 전 교육’ 실시



‘기본 소양교육 및 면접 노하우’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박재연 강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서울 신길) 4층 아트컬리지에서 ‘2011년도 장애인 취업

전 교육’을 개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구직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50여명의 장애인 구직자들이 참가한 이날 교육에서는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에티켓 등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의 강의를 실시했다.

또한 향후 구직 시 입사지원서에 쓰게 될 ‘증명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전북지원센터(센터장 김창수, 이하 전북센터)는 3월29일(화)부터 30(수)일까지 1박 2일동안 대명콘도(부안군 소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했다.

전북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인편의증진 관련 법령의 이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추진’과 관련한 교육 등이 실시됐다.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 워크숍’ 열어



지난 3월 29일 대명콘도에서 열린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워크숍’에서 김창수 전북센터장이 강의하고 있는 모습.

100세동안과 ‘파트너쉽 협약’ 체결



100세동안 대전유성점과의 ‘파트너쉽 협약’ 체결 모습.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윤석연, 이하 대전협회)는 3월 22일(화) 오전 11시 협회 사무실에서 ‘백세동안 대전유성점(하나복지용구)’와 지역공동체 조성 및 건강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후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100세동안 대전 유성점’은 대웅제약의 관계사이자 병원의료관련용품을 연간 6,000억 규모로 거래하는 국내최고의 구매전문회사인 (주)이지메티컴에서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로, 현재 전국에 프랜

차이즈를 두고 복지용구 및 실버상품 대여 및 판매, 건강상담 케어플래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펴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협회는 이를 위해 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해 전통휠체어 및 전통스쿠터 지역순회 A/S 이벤트를 100세동안 대전 유성점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13회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 열려

단합과 화합의 장...성남시팀 ‘종합우승’



전국의 장애인게이트볼대회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13회 빛고을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가 지난 4월 16일 개최됐다. (경기장면)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광주 지역에서 열리는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중 가장 큰 행사인 '제13회 (빛고을) 전국 장애인게이트볼대회'가 4월 16일(금) 광주전천후게이트볼경기장(서구 치평동소재)에서 열렸다.

게이트볼은 관절과 근육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아, 장애인을 비롯해 남·여·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훌륭한 생활스포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빛고을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는 1회대회가 열린 지난 1999년부터 2011년 13회 대회까지 총 8,263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전국 장애인의 단합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발된 최강 36개 팀, 총 303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지난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했다.

대회결과 종합우승은 경기도 성남시팀이 차지했다. 이밖에 경북 상주팀이 2위에, 거창 곰두리팀과, 평창 곰두리팀이 공동 3위에 올랐다.

부천시섬돌봉사회 '이·미용 봉사' 실시

지회 후원단체 '작은사랑후원회' 지원

경기협회 부천시지회

부천시섬돌봉사회(회장 최복순)는 지난 3월29일(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 사무실에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이·미용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천시 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춘반 봉사자와 미용전문 강사 이경희씨 등 전문 미용사를 포함, 10명의 봉사자들이 오후1시부터 4시까지 30여명에게 무료 이·미용 봉사를 실시했다.

서비스를 받은 부천시지회의



부천시섬돌봉사회의 '이·미용 봉사' 모습

회원들은 만족감을 나타냈고 이내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행사를 마친 후 자원봉사자들은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약간은 힘들기도

하였지만 컷트를 마치고 흐트해하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 부천시 내의 소외계층 및 장애인 등을 위한 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 4월 9일 개최한 '샘골한마음걷기' 행사 모습.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정읍 만들기'

정읍복지관, 20일 '샘골한마음걷기' 개최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형, 이하 정읍복지관)에서는 4월 9일(토)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에서 '정읍시민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샘골한마음걷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4월 20일(수)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정읍시민의 건강증진과 장애의 이해, 장애인식개선, 장애예방, 사회통합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1,500여명의 정읍시민 및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에서 내장방향 자전거도로까지 약 4km정도의 코스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 '1대1파트

너 걷기'가 진행됐다.

또한 축하공연, 테마체험, 홍보부스, 기념품 제공 및 경품 추첨 등을 열어서 마지막까지 정읍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함께 실시됐다.

정읍복지관 박종형 관장은 "장애인 인식 개선에 효과적인 샘골한마음걷기를 매년 개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아름다운 정읍'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7회 장애인식개선예술제 그림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실시되어 30여명의 학생들에게 정읍시장상, 정읍교육지원청장상 등의 상장을 수여했다. 수상작품은 향후 전시회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정읍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협회 성동구지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성동구지회(지회장 박기대, 이하 성동구지회)는 지난 3월 29일(화) 오전 11시 성동구 장애인생활회관에서 '무료급식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성동구청 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해 성동구 한마음 봉사회 등 약 80여명이 참석해 성동구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박기대 성동구지회장은 "매일 성동구 장애인생활회관 1층 식당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역 장애인 위한 '무료급식소' 개소

장애인생활회관 식당...매일 점심 제공



성동구청 관계자 및 성동구지회 임원들이 성공적인 급식소 기원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2회 정기문화예술공연’ 개최

문화공연 관람 기회 제공...행복누리예술단팀 등 공연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복지관)은 4월 15일(수) 복지관 3층 강당에서 ‘2011년 제2회 정기문화예술공연’을 실시했다.

복지관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이날 공연에는 의정부시 행복누리예술단팀의 현악앙상블을 비롯해 꾸미꾸미 중창단, 일렉밴드팀의 공연이 마련됐다.

특히 시립 소년·소년 합창단 ‘꾸미꾸미 중창단’은 복지관 이용자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미니 뮤지컬’을 선보이며 이용



일렉밴드팀과 직업훈련생의 합동공연 모습.

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의정부복지관 김인숙 관장은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의정부시 행복누리예술단팀, 복지관이

이용객, 지역주민 및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린다”며 “더 좋은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식 개선 ‘슬로건, 사진 공모’

경기도민 신청 가능...오는 29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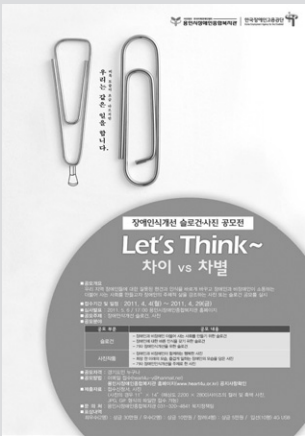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용인복지관)은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식개선 슬로건·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용인복지관 홈페이지(www.heart4u.or.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

아 슬로건과 사진 두 가지 분야의 작품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이메일(heart4u-y@hanmail.net)로 오는 4월 29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1인당 전 분야 최대 2점씩 중복지원이 가능)

제출된 작품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최우수(분야별 1점 / 총 2점), 우수(분야별 1점 / 총 2점), 장려(분야별 2점 / 총 4점), 입선(10명)에게 상금과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슬로건·사진 공모전’ 포스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용인복지관 홈페이지(www.heart4u.or.kr) 혹은 복지정책팀(☎031-321-484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화테크엠(주)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스마일배드민턴동호회에 유니폼 전달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한화테크엠(주) 아산공장(대표이사 김남규) 자원봉사단이 지난달 30일(수)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복지관)이 장애인생활체육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마일배드민턴동호회’를 찾아 유니폼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한화테크엠(주) 아산공장 자원봉사단과 스마일배드민턴동호회장(회장 안재현), 아산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회장 엄신호), 아산복지관 최순호 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자원봉사단은 유니폼을 전달

하며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장애인 생활체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스마일배드민턴동호회장(안재현 회장)과 아산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엄신호 회장)은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물품 후원에 대해 감사하며 많은 기업에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화테크엠(주)은 지난 2006년부터 아산복지관과 인연을 맺은 이래 장애인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한 물품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봄기운 만끽하고 왔어요!”

‘장애인 등산 프로그램’ 실시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와 직원들이 칠보산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유지 및 여가활동 기회제공 등을 위해 ‘등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유정주, 이하 문경복지관)에서는 4월 16일(토) 이용자와 직원이 함께 충북 괴산에 위치한 칠보산 등산을 실시했다.

문경복지관은 지난 2006년부터 등산 프로그램은 실시하여

지금까지 한라산을 비롯해 총 37회에 걸쳐 국내 명산을 두루 답사했다.

이를 통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등산을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는 성과를 이뤄냈다.

산행에 참여한 한 장애인은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고 정상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의 행복함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석연)은 4월 15일(금) ‘장애인의 날 및 복지관 개관 6주년 기념식’을 복지관 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유성구청장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을 비롯한 내빈과 장애인 및 가족 1,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소방악대의 힘찬 행진곡으로 시작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용자들이 평소 갖고있던 자신의 장기를 뽐내는 시간과 장애인복

장애인의 날&개관 6주년 기념식



지난 14일 열린 제31회 장애인의 날 및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6주년 기념식 행사 모습.

지발전을 위해 노력한 당사자와 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

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이 차례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방문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인식 전환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주)아름다운사람을 방문, 직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0일(수) 서울 독산동에 위치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주)아름다운사람들을 방문, 회사관계자와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아름다운사람은 1998년 문을 연 인사복 제조업체로, 전체 근로자 183명 중 80명(44%)이 장애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대표, 장애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것이 불만이다. 대기업이 장애인을 쓰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복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설명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장애인에 대한 고용 인식을 가지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는 정부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의 교육과 훈련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은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대표 및 근로자와의 간담회 후 사업장 내 완성복 코너에서 인사복을 맞추기 위해 신체 치수를 잴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진영근 고용복지수석, 김희정 대변인,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사회적기업 대표, 장애인근로자 등이 동행했다.

곽정숙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지난 4일(월) 지난 2008년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100분의 10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 장애인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 소외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인구가 국민의 10%인 500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2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299명 중 장애인 당사자 의원은 8명으로 2.6%, 광역의원

은 1.7%, 기초의원은 1.2%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여성후보자에 대해서는 50%이상 추천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선거권 보장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곽정숙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장애인 후보자 공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에 관한 홍보 및 전달, 투표 시 정당한 편의 제공이 가능해져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월) 오전 회의를 갖고, 곽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출처-에이블뉴스〉

“못 걷고 팔 못 쓰는 자만 전동휠체어 지원”

박은수 의원, 현행 전동휠체어 지원대상 기준 지적 진 장관,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 개선” 답변

까다로운 전동휠체어 지원 기준으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다가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2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5년 4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전동휠체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라 오는 4월이면 많은 중증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새로 신청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2008년 4월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자 기준이 바뀌면서 혼자 100m보행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기준에 도수근력검사까지 추가됐다. 또한 팔을 못쓰는 사람을 5등급으로 나눠 3등급 이하의 전동휠체어는 쓸 수 있게 하며 4.5등급은 전동휠체어는 못쓰고 전동스쿠터만 쓰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못 걷는 사람 뿐 아니라 팔도 못쓰는 사람한테만 전동휠체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휠체어가 낡은 많은 장애인들이 올해 4월부

터 새로운 휠체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기준 강화로) 대부분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게 생겼다. 이에 따른 대란이 정말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동휠체어는 실내, 실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전동스쿠터는 실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은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척수장애-완전손상 제외) 도수근력검사(상지) 3등급 이하가 나온 상지기능 장애인이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인지기능정도 확인이 기준에 포함돼 있다. 기존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에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돼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지체·뇌병변장애인이 해당됐었다.

전동스쿠터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우며(척수-완전손상은 제외) 내부기관 중복장

애와는 상관없이 상지도수근력검사 결과 4.5등급인 자로 의사의 의학적 소견상 신경근골격계 질환이 있어 관절의 기능저하로 수동휠체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 처방이 있는 지체·뇌병변장애인이다. 만약 상지기능에 이상이 없고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졌다면 상지도수근력 검사결과가 4.5등급이 나오며 내부기관장애(간질장애 제외)가 중복된 사람에 한하며, 뇌병변장애 경우 인지기능 정도 확인 부분이 기준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과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전동휠체어를 지원한다는 식의 막연한 기준을 정하다보니, 판매업자들이 농간을 벌여 이름만 빌려주면 팔아먹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전동휠체어·스쿠터의 가격도 비슷한데 도수근력검사 등을 통해 겨우 테스트해야만 지원받도록 기준을 나눈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동휠체어는 버스나 전철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유일한 이동수단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보장구를 이용해 혼자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가야 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전동휠체어가 못가는 길의 턱을 없애고 환경을 고쳐나가는 게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며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기뻐하는 장애인에게 갑자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혼자 100m를 못 걷는 사람에게는 모두 전동휠체어를 지원해 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지적이) 일리있다고 생각한다. 기준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기준액(전동휠체어 2,090,000원, 전동스쿠터 1,670,000원) 이내일 경우 실구입가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단, 초과금액은 자부담)받을 수 있다.(단, 초과금액은 자부담)

〈출처-에이블뉴스〉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법에 따라 매년 단계적 확대 교육, 고용, 통신 분야 11개 유형 기관 추가 적용

4월 11일(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11개 유형의 기관이 추가돼 총 30개 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갖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08년 4월 11일 제정 이후 2015년 4월 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그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분야

지금까지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설치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만이 편의제공 의무를 가졌지만, 오늘부터는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도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교육기관들은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 배치 △학습참여 위한 장애인 보조기구 등 대여 △보조견·휠체어 위한 여윌 공간 확보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교육과정 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그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고용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에 한해 적용되던 편의제공 의무는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 작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 △훈련제공 및 훈련에 있어 편의제공 △지도매뉴얼 또는 참고자료 변경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정보통신·의사소통분야

정보통신·의사소통분야의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 기관은 국·공립유치원, 국·공·사립 학교,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 보육 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전자정보와 비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화상전화기, 점자자료, 녹음테이프 등의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만 한다.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 (교육분야)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

차별금지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세부내용
교육	○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학습시설 및 교육활동 공간에서 이동·접근하기 위한 설비 및 이동수단
	○ 교육보조인력 배치	○ 교육보조인력 배치(필요시)
	○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 대여
	○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윌공간 확보	○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윌공간 확보
	○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 교육과정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그 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등

□ (고용분야)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

차별금지영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세부내용
교육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재할·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 재할·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조정
	○ 훈련 제공 및 훈련에 있어 편의제공	○ 장애인의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 보조인력 배치 ○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 훈련참여 보조시설 마련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및 보조인 배치	○ 화면 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 보조인력 배치

□ (정보통신·의사소통)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

차별금지영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세부내용
정보접근·의사소통	○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	○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수화통역,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확대된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자막,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정의)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출처-에이블뉴스〉

이상호 서울시의원, 단식·108배 중단 밝혀

“서울시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 긍정적” “예산 총량, 집행시기 불명확…견제, 감시할 것”

이상호 서울시의원(민주당)이 ‘서울시의 장애인 증액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벌여온 단식농성과 108배를 중단했다.

이 의원은 4월 19일(화) 서울시의회 별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발표한 ‘2011년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에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

인 증액예산 집행 계획이 들어가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면서 “이에 따라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당사자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고, 진행하던 108배와 단식을 정리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예산 총량이 얼마인지 집행 시기가 언제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우려된다”며 “장애계 및 시민사회 단체, 선배 의원과 함께 이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2011년 예산’ 중 증액예산에 대해 ‘불법증액’이라며 재의를 요구하고, 증액예산은 미집행하며 원안 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 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겠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 지난 13일(수)부터 이를 규탄하는 단식

과 108배를 실시해왔다.

이 의원은 108배에 앞서 “장애인계가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마저 서울시가 발목 잡는 것은 서울시가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 밝힌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의 확대라는 목표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이 예산은 정치적 판단으로 집행을 거부할 예산이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적 판단으로 무조건 증액 예산을 거부할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한 생존권 예산을 즉각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19일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하게

변하는 장애인복지 욕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자립과 참여에 중점을 둔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은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강화(행복플러스작업장 확충, 시각장애인헬스키퍼 사업 추진)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자립생활플라자 신규 설치,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확대) ▲장애인 가족육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중증장애인 가정 전세주택 확대) ▲무장애 도시 구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장애인콜택시 증차) 등 총 4개 분야 11개 역점사업을 담고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이상호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 증액예산 집행 계획을 밝힘에 따라 무기한 단식 농성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에이블뉴스

여고생의 ‘장애인 주차실태 고발’ 화제 시민 ‘양심불량’ 과 공무원 ‘직무유기’ 신랄 비판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실태’를 고발한 한 여고생(조수연, 18세, 은광여자고등학교)의 동영상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장애인 주차장인가?”를 제목으로 하는 조 양의 고발영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시민들의 양심불량’과 이를 단속하지 않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 양의 영상에 담긴 한 빌딩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는 비장애인 차량과, 다른 사람의 장애인 표지를 빌린 차량이 당당히 주차되어 있었다. 특히 강남구청은 조 양의 신고에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단속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통보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져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했어도 보행이 어려운



조수연 양의 ‘장애인 주차구역 고발 영상’ 캡처.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민들의 변명도 “주차할 곳이 없었다”, “딸이 애를 낳아 급히 형광등을 갈아주려다 세우게 됐다”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이를 보는 시민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벌금을 물리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힌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면 법을 안 지킨다”라며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조 양은 “관할 공무원은 신고를 해도 단속하지 않고, 건물주는 입주객들 눈치를

보며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장애인주차구역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약자를 배려하고 법을 지키는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마무리했다.

또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은 “나를 포함해 나의 부모, 형제, 친구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물론, 사회적 배려가 정착될 수 있다. 장애인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새로운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도화된 정책부터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고 말했다.

기업 채용담당 “장애인 우대 안 해”

국내 기업체 상당수가 직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을 우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0일(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86.7%가 ‘채용 시 장애인을 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우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그쳤다.

응답한 기업 중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은 29%였으며 채용 이유로는 ‘능력이 되면 장애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서’ 33.3%로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 정책에 따라야 해서

(19.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9.2%)’ 등의 응답이 있었다.

장애인이 주로 종사하는 업무는 ‘부서 특성을 살린 전문 업무’ (36.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수작업 중심의 단순 생산 노동’이라는 응답도 28.7%를 차지했다.

기업의 장애인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부의 장애인 채용 지원 강화(39.3%)’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직업 훈련 강화(18%)’,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강화(16.3%)’, ‘직원들의 인식 변화(15%)’ 등의 의견이 나왔다.

“노동능력 고려한 장애판별· 직업적 기준 시급”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화여자 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이 공동주최한 ‘2011 한국장애인 복지학회 세미나’가 지난 3월 30일(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문화관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장애인고용과 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 아래 ‘교육, 문화’, ‘고용’, ‘기초 복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 장애 유형·정도 고려된 교육지원 필요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는 ‘교육, 문화 분야’ 발제를 통해 “미국의 경우 지적능력에 한계가 있는 학생들은 정규 학교 수업만을 이수해서는 졸업 후 직업을 가지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진로계획이나 직업교육을 졸업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지원과 고등학교 시기부터 진로교육 및 지도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교육지원…조기 진로지도 필요

“장애인 고용과 복지사업 발전” 세미나에서 제언 나와

와 장애인고용공단, 교육인적 자원부간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정부부처나, 기관들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 교수는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직업훈련은 사회에서의 직업과 바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학교에서 받은 직업훈련이 졸업과 함께 소용없이 될 수도 있다”며 “학교에서도 직업훈련보다 많은 내실을 꾀하고 장애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직종의 개발과 그에 따른 직업훈련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사무총장은 “2008 국립특수교육원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1만7553명이며 이중 1/3이 3학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5850명 중

460명(7.8%)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92%의 학생들은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며 “지적장애학생 등에 게 정규 수업만을 이수해서는 졸업 후 직업을 가지기 어려워 본인의 선택에 의해 진로계획, 졸업 전부터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미국의 전환교육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 노동능력 고려한 장애 판별· 직업적기준 마련 시급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고용 분야’ 발제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상 단순히 정하고 있는 장애인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현행 복지정책 대상보다 더 넓게 정책 대상 영역을 정하고 있어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노동 능력을 고려한 장

애의 판별기준과 직업적 장애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장애인 고용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의무 고용제는 주로 신체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지적, 자폐성, 뇌병변, 간질장애, 정신장애 등 신경·정신적 장애를 수반한 장애는 항구적인 장애이며 직업적 중증장애”라며 “‘장애인 직업재활·고용 시스템(ABLE)모델 같이 장애인고용정책의 새로운 모델의 도입과 적용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을 보호고용의 산실로 육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의 완벽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계속 시행 등을 주문했다.

■ 일하는 장애인 많아지면, 복지비용 감소

한신대학교 홍선미 교수는 ‘기초복지 분야’ 발제를 통해 “2009 장애인가구 빈곤실태를 보면 장애인 65%가 현재 장애로 인해 월평균 약 15만 9000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어 장애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16%에서 27.8%로 무려 11.8%나 증가한다”며 “장애연금수당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평가체계와 급여수준 결정체계를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 및 지원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데 우선 소규모 주거시설에 대한 입주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적 주거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사회생활지원 서비스의 공급량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수갑 이용 정신병원 강제 이송 “정신보건법 위반”

인권위, 직원 2명 불법체포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는 수갑을 사용해 진정인을 포박하고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경남 소재의 A정신병원 소속 직원 2명을 검찰총장에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난 11일(월)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복지부 장관과 해당군수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 동의절차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A병원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남·38)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A정신병원 직원 2명이 창문으로 무단 침입해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A병원으로 이송해 19일간 강제 입원됐으며 이 과정에서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

았다”며 지난해 8월 31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정신병원 측과 2명의 직원은 “진정인 배우자의 요청으로 방문했는데 진정인이 이송에 협조하지 않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해 불가피하게 수갑을 사용했으며, 입원조치한 다음날 배우자와 이혼 상태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진정인을 설득해 자의 입원으로 치료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병원 직원 2명이 진정인 집을 방문했을 당시 진정인은 주취상태로 혼자 잠을 자던 중으로 수갑을 채워 이송해야 했을만큼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경위도 병원 이송을 위한 설득 과정에서 우발적으

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해 수갑을 준비해 갔던 것으로 이는 형법 상의 체포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입원 과정에 있어서도 “A병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서없이 재활의학과전문의 진단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다음날인 2010년 8월 10일 입원을 요청한 진정인의 전처가 이혼 상태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된 후에도 곧바로 퇴원시키지 않고 8월 27일에야 퇴원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입원 과정에 있어서 정신보건법은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없이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동의서를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진정인을 수갑으로 포박해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강제 이송한 행위, 적법한 입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형법과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이모저모



플리밍고 공연단의 오프닝 행사

2011년 4월 20일(수) '장애인의 날'의 31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이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편견은 차별을 낳습니다. 배려는 평등을 낳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 장애인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등이 실시됐다.

본지는 새로운 희망의 열기로 가득했던 이날 기념식의 풍경을 화보로 담았다. <편집자주>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제31회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식 개선'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박진희 씨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김황식 국무총리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홍보대사로 선정된 배우 박진희 씨와 영화 '글러브'의 모델인 청각장애인 야구단 총주 성심학교 야구단원 홍준석 군이 함께 '장애인인권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국민의례. 영화 '글러브'의 모델인 청각장애인 야구단 총주 성심학교 야구단의 모습이 보인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김정록 중앙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고 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 김정록 중앙회장.

지난해 '슈퍼스타 K'에서
대상을 수상해 가수로 데
뷔한 허각 씨가 자신의 데
뷔곡 '언제나'를 열창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
총리의 차사.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들.



이날 기념식은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시각장애인 가수 김지호 씨의 축하공연.



가수 강원래 씨와 '콩따리 유랑단'의 식후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오른쪽)과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콩따리 유랑단'의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 김정록 중앙회장이 기념식이 끝난 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 극복한 소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다”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소년 ‘코디 맥카스랜드’

내 이름은 코디 맥카스랜드



지난 4월 13일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에 소개된 코디 맥카스랜드(Cody McCasland)

2001년 10월 2일, 한 아이가 예정일보다 6주 이른 조산아로 태어났다. 그 아이는 선천적 희귀병인 천골발육부전증(Sacral Agenesis)을 가지고 태어나 신장 결함과 하반신이 발달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발가락도 4개만을 가지고 태어나 3일 만에 첫 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무려 15번의 수술과 물리치료를

받게 되지만, 스포츠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게 된다.

그 아이의 이름은 코디 맥카스랜드(Cody McCasland). 코디는 지금 금메달을 꿈꾸고 있다.

천골발육부전증 15번의 수술...

지난 2001년, 코디가 천골발육부전증이란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코디의 아버지 마이크(Mike)는 오른쪽 무릎아래가 발달하지 못하고 발가락도 4개만을 가진 아들을 바라보며,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아내 티나(Tina)에게 코디의 상태를 얘기할 수 없었다.

코디는 태어난지 3일만에 수술을 받았고, 담당의사는 부모에게 코디의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을 알렸다.

두 번째 수술을 받은 코디는 23일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지만, 2001년 11월 코디는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엄마의 인공호흡 후에 다시 병원에 입원해 3번째 수술을 받는다. 이후 코디는 2001년 텍사스 스코티시 라이트 아동병원으로 옮겨져 12차례에



해맑게 웃으며 달리는 코디

걸친 수술과 물리치료를 받게 된다.

스포츠에 재능을 보이는 코디

15차례의 수술과 장애의 곁에도 불구하고 해맑은 미소와 어린아이 특유의 순진함을 잃지 않은 코디는 스포츠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양쪽 무릎아래가 발달하지 못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특수 제작된 장애용 다리를 가지고 친구들과 축구는 물론 골프, 자전거, 암벽타기, 카누 심지어는 제트스키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많은 화제를 낳게 된다.

또한 코디는 센트럴 오클라호마 대학(University of Central Oklagoma) 장애인 게임에 출전해 60m와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 25m 자유형과 배형에서 금메달을 따며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달라스에서 개최된 3종경기에서 부모와 함께 결승점을 통과하는 코디

코디의 이야기는 언론에서 화제가 되어 코디의 이름을 딴 ‘팀 코디(Team Cordy)’라는 단체가 형성되었으며 달라스(Dallas)에서 개최된 3종경기에서 마라톤 마지막 주자로 참가를 하여 아동을 위한 자선모금운동까지 벌여 9만5천달러(약 1억4천만원)를 모금하였고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위한 기금에는 4천달러(약 6백만원)의 모금을 성공시켰다.

한편 코디의 스포츠 재능과 모금운동이 화제가 되면서 미국의 유명 토크쇼인 엘렌 드제네레스(Ellen Lee DeGeneres)에 출연도 하였고, NBC 등의 뉴스에도 다루어졌다.

코디를 일으켜준 부모

코디가 자신의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의 부모에 있었다. “코디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늘 상상했고 고민했었다”는 코디의 아버지의 말처럼 그들은 코디가 주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했다. 코디를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존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아이로 여겼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

부모의 교육에 힘입어 코디는 특수 제작된 장애용 다리를 가지고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즐겁게 유년시절을 보냈다. 골프, 자전거, 암벽타기, 카누 심지어는 제트스키까지 도전하는 코디의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며 큰 화제를 낳게 된다.

코디 가족의 소망

이런 코디의 모습은 장애인들은 물론 비장애인들에게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다리를 잃은 군인에게도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모습이 언론(YouTube)에 공개되기도 했다.

코디의 부모는 “코디가 즐거워하는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코디의 이야기가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 특히 장애 아동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토크쇼 엘렌 드제네레스(Ellen Lee DeGeneres)에 출연한 코디는 “내게는 두 가지의 희망이 있는데, 커서 장애인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것과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고 하는 목표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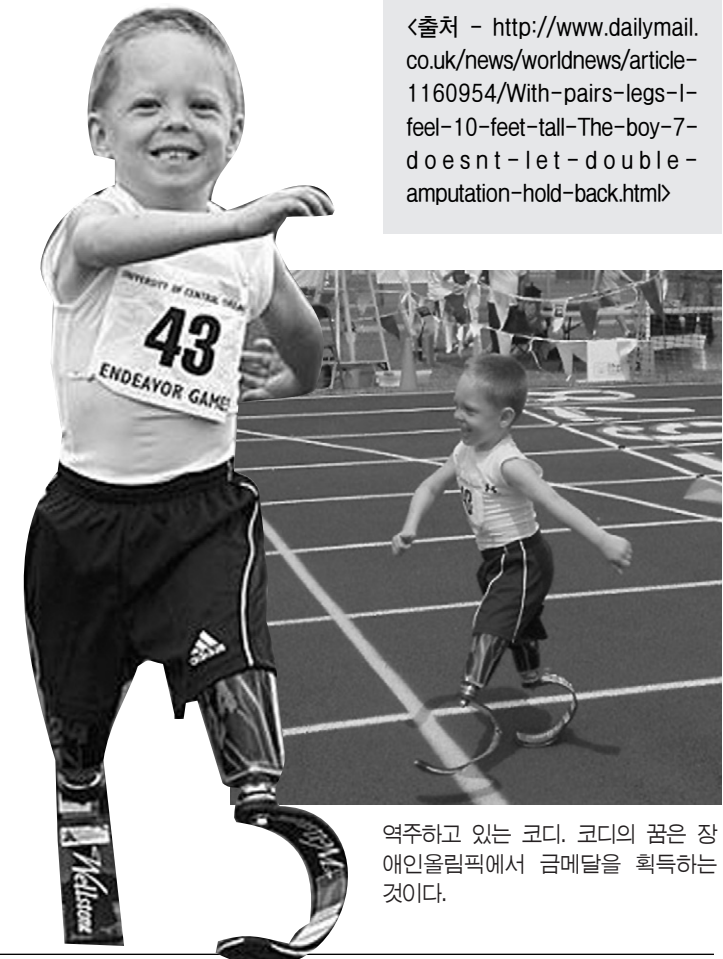
〈출처 - <http://www.dailymail.co.uk/news/worldnews/article-1160954/With-pairs-legs-I-feel-10-feet-tall-The-boy-7-doesnt-let-double-amputation-hold-back.html>〉



코디가 사용했던 보조기구들. 더디지만 코디는 지금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낚시중인 코디. 코디는 카누와 암벽타기, 제트스키 등 비장애아동들도 어려워하는 스포츠에 재능을 보이고 있다.



역주하고 있는 코디. 코디의 꿈은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이다.

제24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 안내

□ 대회개요

- 1. 대 회 명 : 제24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 2.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3. 일시/장소 : 2011. 6. 3(금) 10:00 /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 4. 참가부문 : 미술부문, 글짓기부문, 사진부문, 음악부문
- 5. 참가자격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대학·일반 장애인 및 가족
 - 지역예선 수상자 및 본선 참가자 100명
- 6. 참가방법
 - 미술, 글짓기, 사진부문 : 작품현상공모
 - 음악부문 : 당일 경연
 -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람.
- 7. 모집기간(작품 및 참가자) : 2011년 4월 25일(월) ~ 5월 20일(금)
- 8. 시상인원 및 상금

등위	구분	인원	미술	글짓기	사진	음악	비고
전체 대상	1명	상금 및 상장, 부상					장관상
각 부문 대상	4명	각 상금 및 상장, 부상					장관상
각 부문 최우수상	10명	각 상금 및 상장, 부상					장관상
각 부문 우수상	4명	각 상금 및 상장, 부상					대회장상

※ 시상내역은 관련부처와 협의 하에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 입상자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시상에서 제외됨.

- 9. 문의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대 표 전화) 02-796-4280
(담당자직통) 02-2289-4371
(팩 스) 02-796-4281
(홈페이지) www.kappd.or.kr

□ 미술, 글짓기, 사진부문 작품 현상공모

- 1. 접수기간 : 2011년 4월 25일(월) ~ 5월 20일(금)
- 2.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내방접수
 -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접수된 작품은 일체반환하지 않음.
- 3. 접 수 처
 - 우) 150-9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지원팀
- 4. 응모요령
 - 가. 미술부문
 - 한국화(동양화), 서양화, 서예 등
 - 자유 주제
 - 나. 글짓기부문
 - 자유주제로 수필, 시, 체험수기, 생활수기, 성공사례 등
 - 다. 사진부문
 - 주 제 : 자유 주제
 - 디지털사진 : 인화된 사진(사이즈 8×10 인치)
 - 필 립사진 : 인화된 사진(사이즈 8×10 인치)
 - ※ 참고사항 : 장정불요
 - ※ 입 상 시 : 원본 파일(디지털 사진) 또는 원본 필름(필름 사진) 제출
- 5. 발 표 : 2011년 5월 말 입상자 개별통보

□ 음악부문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 1. 접수기간 : 2011년 4월 25일(월) ~ 5월 20일(금)
- 2.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내방접수
 -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팩스신청 가능)
- 3. 접 수 처
 - 우) 150-9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 한국지체장애인협회(T. 02-2289-4371, F. 02-796-4281)
- 4. 참가자격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포함)·대학·일반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 5. 경연부문
 - 피아노·바이올린·첼로·기타 악기 : 자유곡 연주 경연(5분 이내로 연주)
 - 국악기(신설, 5분 이내 연주)
- 6. 경연일시 : 2011. 6. 3(금) 10:00
- 7. 경연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 일정상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음. 변경 시 개별 통지 함.)
- 8.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가족일 경우(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장애인가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정부, ‘중증장애인 31명’ 특채

5월 2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



특별채용 공고가 게재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캡처 화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부의 22개 정부부처가 ‘중증장애인 31명’을 특별 채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는 4월 13일(수) 지난해

23명 보다 8명 늘어난 31명을 중증장애인을 ‘특별채용’할 것을 밝히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했다.

채용대상은 장애유형별 2급과

3급 이상,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며 선발예정인원은 일반직 25명, 연구직 5명, 기능직 2명이다. 계급별로는 5급 2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6명, 10급 2명, 연구사 5명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5월 2일(월)부터 5월 4일(수)까지 3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하며,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없이 1차 서류전형, 9월 1일과 2일 2차 면접을 거쳐 9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부처 이외에도 서울 10명, 전남 1명, 부산 2명, 울산 1명, 경기 2명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여성 INU 기자학교’ 수강생 모집

장애여성네트워크가 ‘장애여성 INU 기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장애학교 INU 기자학교’는 장애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유기고가로서 글쓰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좌이며,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여성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10명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며, 소정의 교통

비가 지급된다. 신청자는 오는 5월 2일(월)까지 카페(<http://cafe.daum.net/dwnetwark>)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강좌는 ‘쉽게, 즐겁게, 나와 우리와 소통하다’, ‘장애여성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뒤집다!’로 나뉘어 총 8강으로 이루어져 오는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또한 기존의 글쓰기 교육

형식과 달리 영상·사진·잡지·오감재료·놀이 등 다양한 교육자료가 이용되며, 장애 특성·손의 장애·활동 속도 등을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강생들의 글은 장애여성네트워크의 웹진인(<http://inuhow.tistory.com>)에 실리거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글쓰기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 장애여성네트워크(☎02-784-1680)>

서울, ‘주춧돌 통장’ 큰 호응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경제자립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춧돌 통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4월 10일(일) 영구임대주택 총 2만2370가구 중 4.13%에 해당하는 924가구가 주춧돌통장에 가입해 주거자립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춧돌통장’은 서울시 임대주택 거주자 중 주거자립이 힘든 저소득층이 2년에서 5년 동안의 적금 만기를 채우면 서울시가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생긴 이자만큼 가산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거복지정책이다.

자립여건이 뭉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 근로를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자처하는 저소득층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주춧돌통장제도의 최우선 가

입대상은 우선 최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2만 2370가구 거주자이다.

서울시는 이 중에서도 입주자격 탈락가구와 민간주택이주 희망가구, 임대료가 높은 상위 임대주택이주 희망가구에 우선 신청권을 부여했다.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가입자를 모집한 결과 퇴거예정자 140호, 기초생활수급탈락자 453호, 수급·한부모가정 206호, 장애인가구 70호, 청약저축가구 등 기타 55호, 총 924가구가 주춧돌통장을 신청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93호, 40대 95호, 50대 320호, 60대 이상 416호 순으로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해 연령이 높을수록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소비성향이 강한 젊은 층에 비해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온 세대가 저축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2청, 특수학교·학급에 13억 지원

경기도교육청 제2청(경기교육2청)은 올해 관내 특수학교와 학급의 방과 후 교육활동에 13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6일(수)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양주 경은학교와 파주 자운학교 등 공립 특수학교 2곳, 고양 홀트학교, 명현학교, 파주 새얼학교 등 사립 3곳, 그리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 56곳이다.

이들 학교와 학급은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소질·적성개발,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실정에 맞게 인근 복지관, 체육시설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교육2청은 방과 후 교육활동비 지원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 강사 확보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교육2청 관계자는 “장애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휠체어 무료로 수리해드립니다”

부평장북, 5월 4일까지 모집…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이 휠체어 무료 안전검사 및 수리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서비스 대상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지역장애인으로서, 오는 5월 4일(수)까지 전화 및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이용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수동휠체어의 경우 무료로 점

검 및 수리가 가능하며,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는 소모품 교환 및 수리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리비용은 3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5월 11일(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지하 1층과 주차장에서 이뤄진다.

<문의 -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032-512-9862)>

노틀담복지관, 컴퓨터교육생 모집

5월부터 8월까지 매주 2회 교육

인천 노틀담복지관(관장 김희순)이 4월 30일(토)까지 선착순으로 ‘무료 장애인 컴퓨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컴퓨터 교육은 5월부터 8월까지 매주 2회 컴퓨터 기초(인터넷 활용), 문서작성(한글), 오피스(엑셀), 포토샵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인원은 각 과정별 10명씩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틀담복지관(032-542-3711, 내선 125 또는 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 노틀담복지관이 ‘무료 장애인 컴퓨터 교육생’을 모집한다.

충남교육청, 장애학생 통학편의 지원

17억원 투입...통학버스 임차 등 지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 이하 교육청)은 약 17억원을 투입,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지역·거주지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통학 편의를 지원한다고 4월 8일(금) 밝혔다.

교육청은 10억으로 29대의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버스마다 장애학생의 안전지도를 위한 통학안전요원 1명씩을 배치해 운영한다.

또 통학버스 미지원 학교에 대

해서는 지원신청 시 통학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지원신청을 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결정해 지원하는데 전체 장애학생 3000여명중 680명, 학부모 513명 등 총 1193명이 대상이며 약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통학비 지원 대상은 도보로 통학이 어려운 버스 두정거장 이상의 원거리, 통학버스 비경유 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중

증장애학생의 통학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 통학버스 이용을 위해 운행 코스까지 가는데 실제 소요되는 보호자 부담 비용 등이다.

이대구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통학편의 지원을 제공해 특수교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괴산 장애인들의 숙원...2012년 착공



충청북도 괴산군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계획이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북도 괴산군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것을 지난 6일(수) 발표했다.

괴산군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이 3천5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고 있으나 도내에서 괴산군만 장애인복지관이 없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했다.

이에 괴산군은 괴산을 동부리 181 노인복지관 부지에 2013년 5월까지 28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축면적 1천

500㎡ 규모로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춘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강당과 사무실, 의료재활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 등이 들어서며, 이 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군은 건립 예정지에 대한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통과되면 8월 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3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은 작년 9월 수립에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으며, 군은 보건복지부와 충북도를 상대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왔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지역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다”며 “차질없는 예산확보와 함께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둘째 아이부터 ‘출산 축하금’ 지급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도 추가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출산 축하금’의 지원 대상을 셋째 아이에서 둘째 아이로 확대하고, 출산·양육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여성

에 대한 출산축하금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서구에 살면서 지난 4월 2일(토) 이후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마친 가구며, 서구는 둘째 아이 출산 가정은 10만 원, 여성장애인 산모에게는 중증 50만 원, 경증 3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지급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개정된 출산장려 지원조례에 따라 70

만 원으로 상향한 셋째 아이 이상 출산

하금, 50만 원씩 지급되는 쌍둥이 축하금과 생후 1년 동안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10만 원 지급하는 재가양육비는 유지한다.

서구는 이 밖에 임신부의 산전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저소득층 산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바랍직한 균형식 섭취를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구는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불임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출산 축하금 확대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장애여성을 비롯한 ‘출산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부산, ‘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개소

보조기구 체험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장애인과 한 몸이 돼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가 부산에 문을 연다.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는 지난 4월 12일(화) 오후 4시 연제구 연산4동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부산시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선정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중앙사례관리센터인 국립재활원과 보건복지부, 부산시의 지원으로 부산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된다.

이 사례관리센터는 맞춤형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을 통합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생애

주기·생활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펼친다.

이곳에서는 사회복지사, 재활공학사, 작업치료사가 상담·평가, 적용 및 훈련, 수리 및 개조, 사후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기구를 맞춰주고, 보조기구 전시 체험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구 체

험 및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또 휠체어 및 이동기기, 앉기 및 자세 보조기구, 일상생활 동작 보조기구 등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안내, 보조기구 임대, 수리·개조, 소독·세척 사업과 장애인의 환경 및 주택개조 사업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 체계 개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전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원 스톱 맞춤형 보조

기구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으로 하여금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사회 전반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장애특성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신체기능이 약한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 밝혔다.

<문의 - ☎051-790-6192>

KBS, 장애인 뉴스진행자 기용

‘장애인과 동행’ 선언, 6가지 약속



KBS 김인규 사장 등이 지난 19일 오후 KBS 본관 앞 무지개다리 준공식장에서 열린 ‘장애인과 KBS 동행 선언식’ 축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공영방송 KBS가 국내 방송사 상 최초로 장애인 뉴스진행자를 기용한다.

KBS(사장 김인규)는 4월 19일(화) 오후 KBS 본관 앞 무지개다리 준공식장에서 김인규 사장,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한국장애인개발

원 이용홍 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 KBS 3라디오 진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과 KBS 동행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KBS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편성 확대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어젠더 개발 ▲장애인 방송 출연 확대 ▲장애인 시청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장애인 문화축제 기획과 축제의 장 확대 ▲KBS시설 장애인 친화적 개선을 선언했다.

특히 KBS는 장애인 방송 출연 확대의 하나로 장애인의 뉴스진행자 기용을 밝혔다. 선발은 장애인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공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애인 뉴스 프로그램의 특정코너를 맡아 주기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KBS는 “이번 동행 선언이 소외계층을 겨냥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장애인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에이블뉴스〉

‘한중일 장애인미술 교류전’ 열려

3개국 장애인작가 작품 180여점 전시



‘2011 한·중·일 장애인미술 교류전’에 참석한 장애인이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2011 한·중·일 장애인미술 교류전’이 4월 13일(수)부터 17일(일)까지 3박 4일간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회장 김충현)의 주최로 열린 이번 교류전은 역량 있는 장애인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을 통해 장애인미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작품을 전시해 한국장애인 미술가의 역량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교류전에서는 서양화, 동양화, 서예, 공예 등 한·중·일 장애인미술작가들의 작품 160여점이 전시된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 김충현 회장은 “교류전은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 불평등과 편견을 극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와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유와 생명의 환희가 가득한 예술을 통해 한·중·일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교류전은 오는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해미술관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출처-에이블뉴스〉

영화 <섹스볼란티어> 무료 앱 공개

20일부터 한달 간...화면해설, 자막 제공



영화 ‘섹스 볼란티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된다.

성자원봉사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장애인 인권을 다룬 영화 ‘섹스 볼란티어(감독 조경덕)’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앱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영화 본편에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한다. 아이폰이 기존 핸드폰에 비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런 시도는 스마트폰 사용자 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 좋은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화는 4월 20일(수)부터 한달 간 상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용으로 모두 제공되는 스마트폰 앱에서는 화면해설, 한글자막과 함께 영화 전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뮤직비디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메이킹필름, 단편영화 ‘손님’ 등 부가 콘텐츠도 볼 수 있다.

영화제작사 아침해놀이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무료 상영을 결정했다.

지난해 4월 온라인 상영과

IPTV 등을 통해 한달 동안 관객 46만 명을 동원 흥행에 성공했지만, 이후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 불법파일도 전혀 유통되지 않고 있다.

영화제작사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무료 상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섹스 볼란티어’는 성(性)자원봉사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눈길을 모은 장애인의 인권을 다룬 영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했고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또한, 2009년 상파울루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2010년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는 등 유수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제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9일 폐막

‘태영, 센터가는 길’ 등 총 27편 상영



제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개막작 ‘태영, 센터가는 길’

지난 7일(목)부터 대학로 CGV(무비 플라주)에서 열린 ‘제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9일(토) 폐막작 ‘910712회정’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차별에 저항하라!’를 타이틀로 열린 이번 영화제에는 개막작으로 ‘태영, 센터가는 길’을 포함해 총 27편의 장애인인권영화가 상영됐다.

개막식이 열리는 7일(목)에는 ‘잔인한 계절’과 ‘용산남일당이

야기’, ‘파마’, ‘야만의 무기’ 등이 상영됐고, 8일(금) ‘쿵덕쿵’, ‘당신의 몸은 몇 등급입니까?’와 사전제작된 ‘시설을 탈출해서 자립생활하고 있는데...’, ‘숨’ 등을 선보였다.

영화제의 마지막 날인 9일(토) 12시부터는 ‘분홍 동고래’, ‘나도 때론 물속을 날고싶다’, 추천작 ‘임씨의 택시’, ‘야간수업’ 등과 폐막작 ‘910712회정’을 상영했다.

“장애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한다”

문화부, ‘올해의 추진 정책 및 사업’ 밝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이하 문화부)는 4월 19일(화) 저소득층뿐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수화표준화 사업 지원

문화부는 2005년 ‘표준 수화 규범 제정’을 지원하는 등 수화의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일부 일상생활 어휘와 경제용어를 표준화하는 사업을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일상생활 어휘 1000개와 표준국어대사전 및 경제용

어사전에 수록된 경제 전문어 중 1000개를 선정해 전문가 연구 및 검토를 통해 표준화해 배포·활용한다. 또한 문화부는 수화 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 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어미의 쓰임에 대한 교재를 편찬할 계획이다.

■ 점자콜센터 개설 및 점자 콘텐츠 개발

문화부는 현장 강의용 교재 및 ‘점자 세상’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특수부호의 점자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병행된다.

또한 점자 사용에 대한 궁금증

을 해소하기 위해 ‘점자콜센터’가 올해 5월 중에 개설돼 시각장애인과 점역사들의 고충을 듣고 현행 점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 장애인 복지 기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올해부터 장애인 복지기관 59개 시설, 65개 반에 예술 강사를 파견해 연중 30회 무용과 음악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방향인지·손발협응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신체교감과 자신감 회복 유도하는 무용교육과 교육,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음악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장애인 복지기관의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와 복지관 실무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사례공유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올해 문화부와 16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사업 공모를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소외아동 등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교류를 위해 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연극,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주민과 함께 벽화 만들기 등 총 32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문화바우처 장애인 활용 기회 확대

문화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의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비용을 일년에 5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가 문화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공연·전시 등 개별적으로 예매해 관람할 수 있다. 장애인들은 문화바우처제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예술 관람이 쉽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문화부는 장애인을 위한 기획 사업을 더욱 확대해 장애인들에게 더욱 많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수혜대상 특성별 맞춤형 사업 기획을 통해 관람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차량 및 식사 등 지원해 실질적 관람 편의를 돕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출처-에이블뉴스〉

‘의족 스프린터’ 비장애 선수와 대결 선언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6월 뉴욕 그랑프리 출전



오는 6월 ‘뉴욕 그랑프리대회’에서 비장애 선수와의 기록 대결을 선언한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의족 스프린터’로 유명한 오스카 피스토리우스(Oscar Pistorius, 24세, 남아프리카공화국)가 비장애 선수들과 기록 대결을 선언했다.

올해 다이아몬드리그 6번째 대회인 뉴욕 그랑프리(6월11일) 조직위원회는 피스토리우스가 남자 400m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피스토

리우스는 베이징 대회부터 올림픽 출전에 도전하는 등 여러 차례 일반 선수들과 동등하게 달리겠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

피스토리우스는 종아리뼈 없이 태어나 생후 11개월부터 양쪽 다리를 쓰지 못했다. 하지만 ‘블레이드 러너’라는 애칭을 얻게 한 탄소섬유 재질의 보철 다리를 붙이고 달려 장애인 대회 최고의 스프린터로 명성을 떨쳤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에선 남자 100m와 200m, 400m를 모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당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보철 다리로도 일반 선수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400m 개인 최고기록(46초25)이 기준기록(45초55)에 0.7초 모자라 올림픽 출전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남아공 국내 대회에서 45초61까지 기록을 줄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B기준기록을 통과했다. 5월부터는 꾸준히 대회에 출전해 A기준기록인 45초25 아래로 기록을 단축해 2012년 올림픽 출전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만약 2012년 런던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면 장애인 중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는 육상 선수로 기록된다.

피스토리우스는 “44초대를 뛰는 선수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도전을 늘 열망해온 만큼 최고를 향해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장애인양궁팀, KBS 예능 ‘출발드림팀’ 출연



장애인양궁팀과 드림팀의 촬영 모습.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양궁팀이 4월 17일(일) 오전 10시 35분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 ‘출발드림팀’에 출연했다.

‘출발드림팀’은 스포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스타들과 유명연예인들이 참가해 운동실력을 발휘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양궁팀의 이날 방송 출연은 ‘제31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 세계 정상의 장애인양궁을 소개하고자 이뤄졌다.

이와 관련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염봉선 사무국장은 “이번 출연을 계기로 국민들에게는 장애

인체육을 알리고, 선수들에게는 동기부여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애인양궁팀은 이날 방송을 위해 지난 4월 3일(일) 경기도 성남시 신구대학에서 열린 공개 녹화에 여자선수 4명과 남자선수 4명 등 총 8명이 참가해 출발드림팀의 이상인, 리키김, 채연 등 연예인 8명과 한명씩 짝을 이뤄 경기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장애인양궁 국가대표팀은 올해 7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에서의 6연패 달성을 목표로 18일부터 강화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률 상승, ‘더블카운트 효과’

지난해 첫 시행된 ‘중증장애인 2배수제(일명 더블카운트제도)’로 인해 장애인고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블카운트제도는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10년 12월 기준 장애인의 무고용 사업체 2만3249개소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는 전년 대비 9593명이 늘어난 12만6416명이고, 장애인고용률은 0.07%

지난해 2.24%, 전년대비 0.07% 높아져
미적용 시에는 1.93%로, 0.23% 하락해

상승한 2.24%를 보였다. 하지만 더블카운트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장애인고용률이 1.94%로, 오히려 전년대비 0.23%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은

총 1만7207명이며, 장애인고용률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블카운트제도 미적용 시에는 2.09%로 3.1%가 낮아졌다.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장애인 비공무원은 4196명이었다. 장애인고용률은 2.36%를 보였

지만, 더블카운트 미적용 시에는 2.02%로 3.4% 하락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는 총 6775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2.56%의 장애인고용률을 나타냈다. 더블카운트 미적용 시에는 2.3%로, 0.26% 내려갔다.

민간 기업은 총 9만823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2.19%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였다. 더블카운트 미적용 시에는 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3%이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5%, 2014년부터 2.7%로 확대된다.

〈출처-에이블뉴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사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 낮다”

이채필 고용부 차관, 대기업 장애인 고용 확대 촉구

진)이 3월 30일(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금융 및 보험업종 대기업 27개사 임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장애인고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채필 차관은 이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나눔과 배려의 가치 실현에 금융·보험업종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에 인색한 기

업의 명단 공개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겠다”고 압박했다.

이 차관이 직접 금융·보험업만 골라 간담회를 연 것은 금융·보험업의 장애인고용이 너무 저조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융, 보험업의 장애인고용률은 업종 최

저인 1.25%이며 1000명 이상 근로자를 둔 대기업 60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1.15%에 불과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 9곳을 비롯해 증권사 10곳, 신용카드·할부금융업체 2곳, 보험업체 6곳 등 정원이 1000명 이상인 27개 은행 및 금융대기업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국민연금공단, 삼성증권, 부산은행 등 3개사는 각사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 고용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담당자
1	생산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55세이하	무관	PCB조립업무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2	단순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쇄사업소	경기 일산 장항동	50세이하	무관	인쇄관련단순직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3	사무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쇄사업소	경기 일산 장항동	30세이하	여	사무직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4	디자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쇄사업소	경기 일산 장항동	40세이하	무관	포토샵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5	사무직	종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동대문구	50대이하	남	택배사무실 사무원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6	사무직	한강공인중개사	서울시 동작구	45세이하	무관	사무직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7	경비직	(주)인덕종합관리	서울 전역	65세이하	남	아파트 경비직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8	서비스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전역	65세이하	남	소독원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9	미화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전역	68세이하	여	아파트미화직	월 8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한은희
10	미화직	(주)유전실업	서울 전역	68세이하	여	건물 및 은행 미화	월 8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1	생산직	(주)씨피엘	경기도 안산시	40대 이하	무관	제품검사 및 사출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2	전문직	(주)아이팩이엔지	경기도 화성	30대 이하	남	캐드(경력필수)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3	단순직	행복한 세상	경기도 의왕시	55세이하	여	문구류 조립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4	전문직	드림비전	서울시 강남구	30대	무관	행정·경리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15	사무직	드림비전	서울시 강남구	30대	무관	고객관리 및 온라인 마케팅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독자수기

본지에 게재된 글은 지난 2010년 10월 18일(월)과 19일(화) 양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의 주관으로 개최된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오정은 · 홍성목 부부의 수기로, 장애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반평생을 살면서”

오정은 (아름다운 배우자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변덕스러운 날씨는 울었다, 웃었다, 찌푸렸다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 표정이 번갈아가며 우리의 삶을 이야기라도 하듯 바뀌는 것이다.

나의 삶은 장미꽃이 뿌려진 탄탄대로가 아니다. 나는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세살 적에 열병으로 뇌성마비를 선고받았다. 어느 날 힘없이 누워있는 나를 보고 부모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울었다고 한다. 우리가족은 독자인 아버지와 공부를 하고 싶어 삼일을 굶으며 중학교를 보내달라고 울며불며 때를 썼던 어머니로 교육열이 남달랐다.

친할머니는 아들(아버지)과 딸(고모) 이렇게 두 분을 낳으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아빠와 엄마 사이에 둔 자녀의 수는 9명이다. 둘은 죽고 7남매 즉 1남 6녀 중 나는 막내로 태어났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어린 시절은 언니들 오빠 틈에서 시달린 심적인 갈등은 어마어마하게 컸다.

스스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마음 놓고 꿈을 펼 수가 없었다, 언니들의 눈총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마다 내 손 아귀에서 다 망가 뜨려나갔다. 내손은 공룡처럼 힘이 세어서인지 아니면 조심성 결핍 때문인지는 나도 모른다. 왜 그렇게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이 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유년 시절은 자신감이 없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 글짓기 시간이었다. 제목은 ‘어머니’라는 글짓기를 다 쓰고 선생님께 내고 집에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날 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못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친구들은 거의 다 빠져 나가고 나 혼자만 남았다.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모른다. 선생님은 가지고 와보라고 재촉하셨지만 나는 그만 두 손으로 끌어안으며 보여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나를 두 손 들고 서있으란다. 그 사이에 선생님께서 내 글짓기를 보시고선 잘 썼다고 하시면서 ‘고집쟁이’라고 하셨다. 나는 그날 선생님께 큰 꾸중을 듣고 집에 와서 이불을 무덤처럼 뒤집어쓰고 소리 죽여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사춘기, 감수성 예민한 그 시절 불구의 몸과 싸우느라 얼마나 힘겨웠는지 싸워보지 못한 오빠 언니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면세계와의 전쟁은 그야말로 외로운 투쟁이었다. 건강한 친구들 따라 가느라 그야말로 처절한 자존심 싸움이였다. 친구들은 다 나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었다.

나는 그들의 죄수 중에 죄수였다. 친구로서 좋은 충고였지만 그 시절 만큼은 그 심판대가 두려웠던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홍성목 · 오정은 부부가 ‘아름다운 배우자상’을 수상하고 있는 모습.

머리털 빠지고 피부병에 걸려서 뺨뺨 긁어 대서 온 몸에 가려움증,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중 2때의 일이다. 하교 때 교문을 나와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 앞에 서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였다. 친한 친구에게 집에 전화 좀 해달고 했더니 친구가 전화하자 언니가 왔다. 그 길로 난 두어 달 동안 서지도 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야말로 예민한 신경에 신경 쇠약이 온 것이었다.

이렇게 난 중3으로 올라갔다. 고등학교 입시 연합고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서는 인문계 가기를 원했다. 그런데 갈 실력

이 안 되었다. 선생님도 떨어질 것이 두려워 절대 안 된다고 말 씀하셨다.

오빠가 떨어져도 좋으니 인문계 원서 써달라고 했다. 나는 결국 패배의 잔을 마셨다. 그리고 학원에 등록을 하려고 학원으로 갔다. 학원장은 나를 받아주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엄마의 간곡한 부탁으로 입학 했다. 나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인문계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굳혔다. 판 신경 안 쓰고 공부하니 공부 가 꿀맛처럼 느껴졌다.

시험을 치를 때마다 성적이 오른 나는 반 2등에 까지 올랐다. 그리고 연합고사 치를 그날이 왔다. <다음호에 계속>



독자투고

강형순 (경남 창원시)



해마다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오면 으레 이날을 기념하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리곤 한다. 지난 ‘제10회 장애인의 날’에 게재됐었던 “우리들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내 머리에서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50여만

명에 이르는 등록 장애인이 있다. 그 중,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 장애인도 너무도 많다.

인구 1백만여 명이 살고 있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에 있는 루르공업지대의 중심도시 ‘에센(Essen)’ 지역에는 장애인이 2천여명이 있는데, 도시 안에 그들을 위한 재활치료센터가 자그마치 34곳이 있고 특수학교도 21개교가 있다고 한다. 정말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불릴만하며 우리로서는 부럽기만 하다.

또한 이 도시의 많은 장애인들은 산업역군으로서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량품 발생률이 5% 미만이며 이 수치는 비장애인에 비해 그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집중력이 뛰어나 경영주들이 장애인을 환영한다고 하니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는 장애인을 바보나 정신병약자란 잘못된 인식과 고루한 편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장애인만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과 창의력

등을 잘 개발시켜 적성에 맞는 직종에 종사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필자가 읽은 어느 장애인의 유서에는 “저는 왜 골목골목마다 들어선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물 한모금 마시려고 문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장애인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가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까?”

위의 글에는 대한민국 장애인

의 말 못할 고초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우리들은 장애인이 가정 · 사회에 부담을 준다는 올바르지 못한 아집을 하루속히 버려야 한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경제 제일주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앞만 보고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무관심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심히 여겨왔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눈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돌려야 한다.

사랑과 봉사로 서로 손잡고, 서로의 마음을 감싸안으며 깊은 우정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이 사회 곳곳에서 활짝 꽃피우기를 기원한다.

‘후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가수 휘성·강원래, ‘이달의 나눔인’ 선정

장애인 돕기 ‘기부’ 앞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이달의 나눔인’으로 선정된 가수 강원래(왼쪽)와 휘성(오른쪽).

가수 휘성과 강원래가 나눔의 행복을 몸소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나눔인’으로 선정됐다.

두 사람은 4월 18일(월)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이달의 나눔인’ 20명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달의 나눔인’은 우리사회의 숨은 나눔인을 발굴, 아름다운 나눔 실천사례들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이며, 4월 20일(수)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래와 휘성을 포함, 장애인과 관련된 나눔을 실천한 20명이 선정됐다.

강원래는 각종 장애인 시설 후원과 관련 행사에 재능기부를 해왔으며 휘성은 자신의 콘서트를 통해 객석 기부 및 후원금을 장애인 복지시설협회에 기부하는 등 나눔 실천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달의 나눔인’에 자신이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재능 나눔을 실천한 신종호씨와 시각장애인들에게 직접 생산한 쌀을 기부해 온 시각장애인 농부 원호일씨도 선정됐다.

김장훈, 장애인과 독거노인 위해 1억 쾌척

가수 김장훈의 서울 강남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이 지난 3월 28일(월)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열렸다.

‘항상 어떻게 하면 나 한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가수 김장훈은 저소득아동 긴급수술비지원, 태안기름유출복구비지원과 함께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홍보대사로도 활동하면서 어려운 이웃돕기 홍보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 기부금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필품값이 대폭 인상에 따라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생필품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식 푸드마켓’의 차량 및 생필품 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김장훈의 선행으로 거동이 불편해 푸드마켓을 이용하지 못하는 관내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약 700명에 생필품을 전달하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며 이런 훈훈한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퍼지기를 당부했다.

가수 김장훈이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후원금 납부방법

-지로,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

① 전화신청 : ☎02)796-4280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2010년 3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지민, 김경희, 김구환, 김성우, 김유림, 김정빈, 김정태, 김진호,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태우, 김행우, 김환경, 남용원, 남혁우, 민속박물관,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비클시스템, 서재훈, 신병욱, 시난이, 신희원, 양순연, 유재복, 윤채환, 이상돈, 이은정, 이지수, 이코노스틸, 임채종, 정은연, 조태동,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성훈, 최옥란, 최인준, 최제훈, 최준량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응
모
요
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답
힌
트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은 국민훈장 ○○장을 수훈했다.

1				★2.		3
		4				
5	6					
					7	
	8	9		10	★	
	12			13		



지난호 정답

1★창				2각	선	3미
덕		4★평		성		인
5궁	6여	지	책			박
	행				7사	명
	8사	9기			마	
		상			10천	11지
	12이	청	용			진

| 가로열쇠 |

2. <지명> 프랑스의 동남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공국(公國). 면적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국가로, 공설(公設)의 도박장 및 우표 판매가 주요 수입원이며, 관광 휴양지로 유명하다.
5. <의학> 남이 자기에게 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는 망상. 정신분열이나 조울병의 우울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자주 보인다.
7. 서양 요리에, 맛을 돋우기 위하여 넣어 먹는 걸쭉한 액체. 또는 정보 따위의 출처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자료.
8.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 주거나 빌림.
10. 포악한 정치 따위에 반대하여 백성들이 일으킨 폭동이나 소요.
12.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으로 삼음. 또는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야 할 곳.
13. 행성의 인력에 의하여 그 둘레를 도는 천체. 지구에는 달이 하나 있으며, 화성에는 2개, 목성에는 16개, 토성에는 21개, 천왕성에는 5개, 해왕성에는 2개가 있어 태양계에는 2006년 현재 모두 47개가 존재하고 있다.

| 세로열쇠 |

1. 국내 종합주가지수. 유가증권시장본부(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 ○○○지수(Korean Composite Stock Price Index)
2. 남의 노래를 흉내 내는 일.
3. <식물>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1~2미터이며, 잎은 마주나고 깃 모양으로 갈라진다. 6~10월에 흰색·분홍색·자주색 따위의 꽃이 가지 끝에 한 개씩 피고, 열매는 수과(瘦果)로 10~11월에 익는다.
4.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6. [군사] 육지나 바다 어디에서도 싸울 수 있도록 조직·훈련된 부대. 특히 상륙 작전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인기 배우 현빈이 입대할 곳.
7. 시끄럽고 어수선했다.
9. 중국 삼국 시대에, 촉나라의 재상 제갈량이 출병하면서 후왕에게 적어 올린 글.
10. 적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따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행하는 비군사적 방어 행위.

3월호 정답

평 창

당첨자

전동철 전남 목포시 옥암동
최태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효영 충북 청주시 개신동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쉬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을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폼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2011년 5월 8일(일) 오전8시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주 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SAD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Seoul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AFD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주 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S.I.W.M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서울특별시

KOSA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BS

재정후원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협 찬

신한금융그룹

사랑의일매
사랑의일매

공식음료

POCARI SWEAT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71번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E-mail_seouliwm@hotmail.com Tel. 02-2289-4380, 4332 Fax. 02-2092-1732
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